

Japanese School Exhibits and European Perceptions of Japanese Education at World Exhibition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1876-1904

(19세기 후반 만국 박람회 일본 교육 전시에 대한 유럽인의 인식)

클라우스 디트리히

본 강연은 박람회 보고서 분석을 통한 일본이 만국박람회에서 일본의 교육 전시(展示)에 대한 유럽인의 인식을 분석에 관한 것이다. 사실 일본이 세계 박람회를 통해 해외 문물에서 배움을 얻고자 하고, 동시에 일본 교육과 최신식 제도를 세계적 무대에서 선보이고자 했던 것은 많은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어떻게 일본의 교육 전시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의 문제는 학문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클라우스 강연자의 이번 강연을 통해서 19세기 후반 세계화 초기 시기에 일본에 대한 유럽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 서론

1851년 영국에서 시작된 만국박람회는 '문명화'된 국가들에서 개최되어 그들의 지식과 성과물들을 전시하는 아레나였고, 문명화되지 않는 국가들은 단지 인류학적인 가치로서만 전시될 뿐이었다. 이러한 박람회에서는 정리되고 분류된 형식으로 근대의 지식을 공유하는 욕망이 존재하였고, 특히 교육은 중심적인 소재였다. 1862년부터 만국박람회는 중요한 교육에 관한 섹션을 구성하였고,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교육을 전시하였다. 그 중 세가지 교육적 분야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첫째,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초등교육 둘째, 기술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 다양화되는 고등 교육 과정이 그것이었다. 이는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교육의 개혁, 제도화,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서구인들의 평가가 박람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2. 일본 교육 전시에 관한 유럽인들의 반응

유럽의 교육 전문가들은 만국박람회에 전시된 일본 교육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만국 박람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일본의 교육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개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교육 체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만국 박람회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선보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1876년부터 1904년 사이에 파리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었던 만국박람회에서 전시된 일본의 교육에 대해 유럽의 교육 전문가들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그들의 시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째,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관점이 존재하였다. 사탄적인 과정(Satanic process)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유럽에서 일본 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교육에 관한 전문적 관심이 없는 문예 평론가들이 이러한 편견이 성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중국과 비교해서 중국은 진정한 동양으로서 묘사되고 일본은 타락하는 곳으로 대비하였다.

두 번째 관점은 첫 번째 관점과는 달리 일본의 근대화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교육 전문가들은 일본을 문명화로 나아가는 국가로 보았으며 세계의 보편적 흐름에 동참한다고 생각했다. 후진적으로 인식된 중국과 비교해서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적인 스토리였다. 무릎을 꿇고 공부하였다가 학교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유럽인들에게 일본 교육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셋째, 일본은 단지 유럽의 특징들을 모방하고 따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존재하였다. 이는 절충주의에 대한 비난 혹은 유럽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피상적, 형식적 도입에 대한 비난과 연결된다. 이 관점에서 모방은 수동적이고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넷째,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인 우월하거나 '구 유럽' 보다는 진보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이 시각에 따르면 일본의 제도와 관습은 유럽에게도 가능한 모델이 되었다. 정돈되고, 선택된 계획과 질서정연한 체계는 종종 유럽에서도 칭송의 대상이었다. 최신 교육 개혁을 통해 채택되었던 실물 교육의 확대는 유럽보다 앞 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메이지 개혁은 교육 시스템을 제로 베이스에서 구축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고, 이는 교육 행정가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이 이러한 성공적인 교육 개혁은 일본의 고유한 제도적 맥락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프랑스 공화주의 교육가들은 일본 교육의 비종교성을 원인으로 들고 있기도 한다.

3. 결론

전세계가 보편적인 근대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일본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만국 박람회에서 일본 전시 조직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일본을 나타낼 수 있었다. 먼저 일본은 근대 국가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과장된 서구화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었다. 한편 그들은 일본 전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지만 이것 역시 일본이 아직 근대 국가가 아니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이 일본은 근대적이지만 동시에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것은 복잡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위 천황 중심의 일본 전통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수동적인 모방 국가라고 일본을 인식한 유럽의 인식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일본은 일본 교육이 근대적이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지만,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서구국가들에게 납득시키지는 못하였다.

이 강연은 따라서 세계화 초기 시기에 교육 전문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역사에 대한 고찰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Q & A

Q 여기서 사용된 '교육(education)'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박람회에서 교육 섹션(education section)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 전시와 교육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전시의 기능과 역할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본 강연은 교육 전문가들의 시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Q 1876년 교육 전시에 유치원 교육이 존재하였다 하였는데, 일본에서 유치원 교육은 1877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진실된 근대화된 일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문화적 선전(propaganda)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언급된 것도 있다. 뵤송은 조작된 상류층의 교육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것이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Q 일본과 서구 교육 시스템의 중요 차이점이 무엇인가?

제도적인 레벨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사실 서양의 교육시스템은 다양하고, 특히 미국과 유럽의 교육제도에도 차이가 있다. 독일의 교육의 경우 기술과 학문의 두 개의 다른 track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랐다는 점에서 아시아와 서양의 차이점을 논할 필요는 없다.

Q 결론에서 일본은 만국 박람회에서 일본의 교육 전시가 성공한 점도 있고, 실패한 점도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 일본의 경우 1904년 이후 근대화에 더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강연에서 초점을 맞춘 기간 이후에 근대화에 더 힘썼다는 점에서 기간 설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1880년이 전환기였고, 그 뒤 교육 제도가 더 정착되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때 전시회 조직을 담당할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

Q 나중에 교육 전시가 대만에 적용되었는가?

맞다. 이자와 슈지에 의해 1904 년 식민지 교육에 도입되었다.